서남권

- **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3.0% 상승**

  - 전년동월대비 +13.0% = 소매업의 기여도 +0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2.3%p

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  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

- **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0.9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45.2% 상승**

  - 서남권 소매업은 문화·오락·여가(6월 -12.7% ⇨ 7월 -17.0%), 기타가정용품(6월 -12.7%⇨7월 -15.6%), 음식료품(6월 -1.2% ⇨ 7월 -4.6%)등의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, 연료(-24.7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-5.8%), 종합소매(-1.8%) 등이 감소폭이 둔화되고 의복·섬유·신발(6월 -1.5% ⇨ 7월 13.2%), 기타상품(6월 -1.4% ⇨ 7월 3.1%) 등의 업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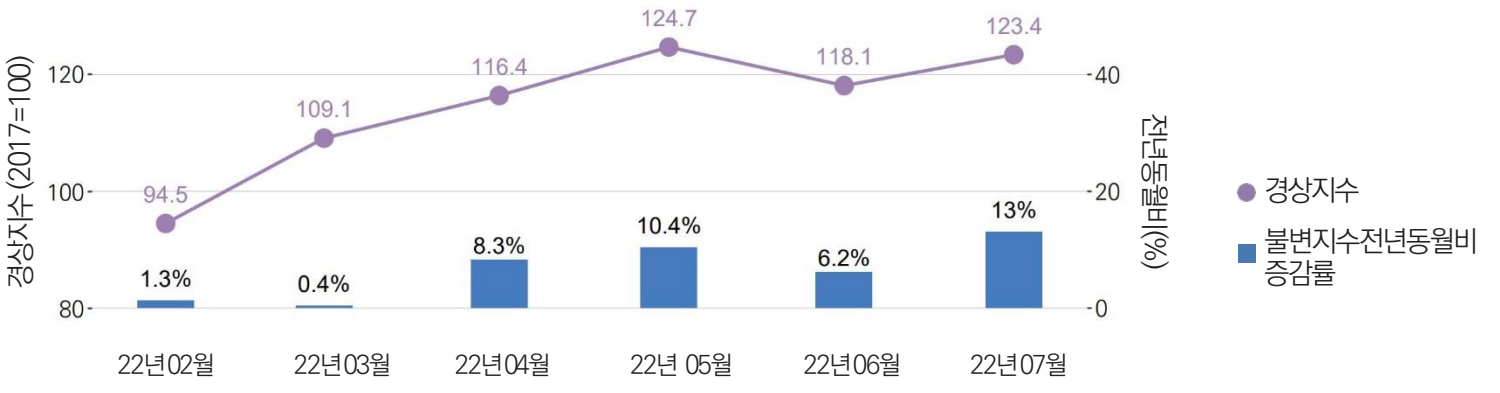
    · 7월 서남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무점포소매,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
    · 반면 연료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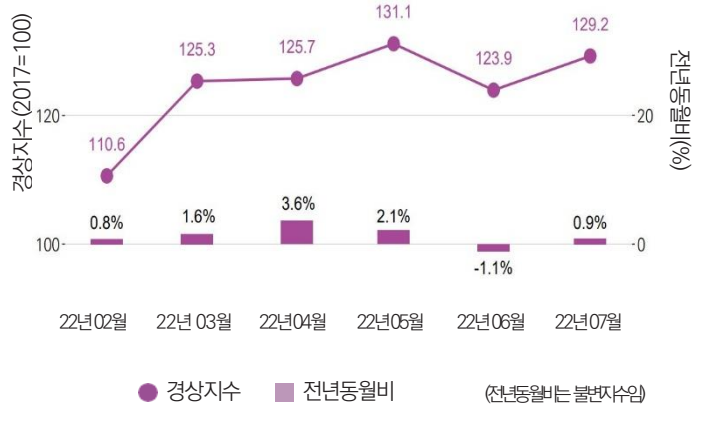
  - 서남권은 전년동월 부진을 지속하였던 주점·커피전문점(93.2%), 숙박(41.4%), 음식점(35.8%) 등 세부 업종이 선전하며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증가하였으며 (전월보다) 오름폭 확대

    · 7월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서남권 소비경기지수



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